

제 목을 제 가 이겨 뒤아 나가라. 마땅히 스스로를 힘써 뒤아라. 자기를 뒤아 이 못것이 없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쳐 뒤게 할 것인가. <法句經·해신품185장>

발행주최	인간	이승민	지정	관용
편집	김강	김영	김영	김영
편집	김국	김영	김영	김영
편집	김국	김영	김영	김영

년월: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267-8577)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인: 이규행

총장구속 충격...학내외 거센 반발

공대위구성, 관련대학 연대투쟁 결의 학원·불교탄압...「대통령 직접 사과」 촉구 李중정격노...불교사상 2번째 「山門폐쇄」

포수회, 공대위 불참

임시총회개최, 독자수습표명



「분노, 또 분노」 「민족통국 지공심부활을 위한 1만동학인 결의대회」가 지난 1일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빙속에서 진행됐다.

83년 역사의 「민족통국」이 개교이래 최대위기국면이라 불리울 회오리에 휩싸이고있다. 李중정총장, 黃軫經이사장이 지난31일 임시부정사건과 관련 대검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 송치된 후 분교에서는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공대위(총학생회, 직원노조, 대학원학생회, 조교협의회, 민주동맹회, 석림동맹회, 불교도 연합회)등 7개단체를, 즉각구속, 현 사태에 대한 냉철한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며 학원탄압과 불교탄압에 대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전체 교수회가 불참한 공대위는 지난 4일 오전10시 1차준비위 모임을 갖고 공동대표직을 7개자치단체 대표로 선정, 김윤길 노조부위원장을 임시대변인으로 임명후 집행위원회와 실무간사회의를 구성하는 등 전체 조직을 건설했다.

공대위는 지난5일 오후 2시 발족식을 갖고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한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진 사태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1천만 불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제한다. 「이번 사태는 역대정권의 파행적 교육정책에 기인한 사학부조리의 단면이며 노태우정권이 학원과 종교계를 탄압하는 고도의 술수로서 이번 사태를 음모적으로 준비하였다」고 규탄했다.

이 성명서는 「전통국인의 일치단결을 강조」한 뒤 그간 모란 입장을 보여 지탄을 받아 왔던 「교수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의 부도덕한 정책의 파행성에 의해 불교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 세종대, 숙대, 한신대, 명지대, 한양대등 관련대학들의 「연대투쟁」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4일 오후 2시 사실상의 전교본사 주지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총무원(4총회의원)에서 「전국주지회의」를 갖고 李중정총장의 조속한 석방, 총장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교 석림회, 전국 교수불자연합회등 40여개 불교단체대표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 해동불교대학(5총장의실)에서 「제2법란 동국사대법불교도공동대책회의」를 갖고 「6공법란 동국사대법불교도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체위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개사과」 「법무·문교장관 파진」 등을 촉구키로 하고 오를(6일) 승려신자들이 참여하는 대종회를 조계사에서 열기로 했다. 4일 해인사 승려 4백여명이 동국사 대표소를 차고, 오후 2시 40분경 해인사 진입로까지 3km진군, 경찰과 대치하며 지난 86년 「9·7」 대의 이후 불교사상 두번째로 「산문폐쇄」 농성을 벌였는데 이는 조계종 李性徹총정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무대행 金正根 교수지명 부정입학과 관련 본교 李중정총장이 지난날 31일 안양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 지난 1일부터 金正根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있다. 이는 총장 김위시 총장이 지명된 사람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되어있는 학칙에 의거한 것으로 예기치 않았던 「총장구속」이 단행되자 직무대행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으나, 지난 1일 오후 宋在震학장처장과 尹賢普총무처장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李중정을 방문한결과 순

정교무처장에게 정식으로 위임된 것이다. 한편, 李중정총장이 이번에도 직무대행으로 순교부처장을 지명할때부터 측근에서는 지난 10대 黃壽永총장 김위시 순교부처장 부총장이 직무대행한 사실을 드러내며 관례일뿐이라고 말했다. 순교부처장이 학생들의 신망을 얻고있는 점 등으로보아 동국대 개혁의 귀추가 주목된다.

직원노조 성명 서울법대직업노조(위원장=이건배)는 총장, 이사장 구속사태와 관련,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장 석방 사표제출키로

李중정총장이 지난 5일 밤 9시 40분 부정부패사건으로 구속된지 5일만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불구속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날 풀려난 李중정총장은 오후 6시 30분경 학교에 정상출근하여 오전 10시부터 학·처장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단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李중정총장은 오후 2시 중강당에서 교수, 학생, 직원들에게 이번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및 해결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李중정총장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법대 318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취소심리에서 총독금 등결로 「경주 부속병원과 포항병원인수매 재원 확보」가 어려워 빛어진 일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돈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 「6공법란 동대사

李中정 총장, 黃軫經 이사장 구속과관련, 이번사태수습을위한 서울·경주 교수회 「임시총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2백93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L301)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군은 金軫經교수총회장을 만나 오늘총회에서 공대위 결성을정식안건으로 상정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63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朴植浩(행정학) 교수가 제안한 「학사회·학생에 관한 교수회 입장」을 알리는 「문안작성소위원회구성」案과 趙植浩(불교학) 교수가 제안한 「초안작성준비위원을 교수회의원및 대표에게 일임하자」는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교수·학생·대학원생·직원노조·민주동맹회등 각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동양공대대책위 결성은 사실상 결렬됐다. 이날 회의도중 金軫經총회장은 「공대위원제는 여기서 거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했으며, 金軫經교수회장은 「대책위」 발안도중 徐載根(경영) 교수등 몇몇 교수로부터 저지당해, 공대위원은 안전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공대위결성이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결렬된채 총회가 끝나고 교수들이 퇴장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학생 30여명은 「교수님을 믿었는데 이럴수가 있느냐」며 분노, 30여분동안 동국관 3층복도에 누워 합의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총회 개최전인 오후 1시부터 학생 80여명은 교수의 공대위 참가를 촉구하는 유인물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배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총회를 통해 교수는 학생들을 배제한 채 교수를 나름대로 사건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열린 교수대의원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할 때 이는 극명해진다.

알림

기사 넘쳐서 이번주 「보리수 칼럼」은 없습니다. 본지 1028호는 추석연휴판 제로 1주휴고 9월 20일자로 발행됩니다.

수습기자 추가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본사에서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경주법대 5명
②응시자격: 1학년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지기자
④제출서류: 本報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9월 21일 오후 4시까지
 경주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9월 28일 오후 5시
 경주 9월 28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필기자에 합람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합법관(서울법대) 원문관(경주법대)
※합법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9월 6일

동대신문사

공 동 동 성 명 서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83년간의 질곡과 고난의 역사속에서 불국정도구원의 전학이념과 민족사학의 순결성을 학문적 정열과 정법 수호의 의지로서 지켜온 동국인임을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입시에 의한 총장, 이사장의 구속사태로 인하여 동국의 자긍심은 깊은 낙으로 떨어졌으며, 동국은 지금 개교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정법을 지켜야 할 대학, 더우기 1600년간 민족 종교로서 민족의 사상과 정서에 길인 스며든 불교의 정신을 이념으로 하는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진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하여 우리 동국인들은 국민 여러분과 천만불자들에게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사과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현 사태를 명백한 학원탄압과 불교탄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외부로부터 부당하게 던진 총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우리 동국인 모두가 힘을 합쳐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성된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원만하고 냉철한 수습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며, 학원탄압과 불교탄압에 대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동국의 혁신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 것이며, 실추된 동국 자긍심의 부활과 상실된 전학이념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모든 동국인의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국사학, 민족사학의 한 마음으로 결의합니다.

<결 의 사 항>

- 하나, 우리는 현 노태우정권의 부당하고 음모적인 학원탄압과 불교탄압에 결연히 투쟁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고 냉철하게 수습될수 있도록 구속자의 처리문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지고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 하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악용하여 예측과 타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대학의 민주화, 자주화, 행정의 중립화 노력을 왜곡하고 매도하려는 어떠한 세력의 준동에도 단호히 투쟁한다.
- 하나, 학원에 대한 문교부의 특별감사가 본교를 비롯하여 대학의 자주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던 몇몇 대학에 보복적으로 집중되었던 것을 주목하며, 관련대학등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할것을 제안한다.
- 하나, 우리는 이 사태가 동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수있도록 전 동국인이 일치 단결하여야함을 거듭 강조하며 교수회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동국의 자긍심을 되찾아주는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동국의 광장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학내에 잔존하는 부정비리의 척결과 재단이사회의 혁신적 개편을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 하나, 우리는 이러한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통한 학문공동체의 건설을 위하여 실천적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1989년 9월 5일

동국 자긍심 부활! 동국의 자주적 혁신!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社說

이제는 모두가 단결할 때다
민족통국의 자긍심 회복이 급선무

지난달 22일부터 10일간 본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문교부 특별종합감사는 13년만의 이례적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무수한 에측들을 낳았으나 결국 한국의 대학사상 초유로 총장과 이사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번 구속사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공안정국과 맞물린 학자부 탄압책동이라는 것, 조계종대내 암부의 산물이라는 설, 또는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쟁자들 간의 모략에 의한 것이라는 등 갖가지 분석들이 있으나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파국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어쨌든 그동안 가려왔던 본교의 치부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고 비통해 하지 않는 동국인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학원과 종교는 기본적으로 지나야 할 도덕성으로 인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명 본교는 종교와 학원이 결합된 만큼 그 도덕성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이번 사태에 인해 더욱 충격과 여파는 타교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고, 고강도의 징계라는 데 있어 앞으로는 정물수 없는, 치욕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차치하고 「왜 우리학교가 부정입학이 돼야 하는가?」라고 따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방안일 수 없다. 분명히 본교보다도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대학이 있고 부정입학이 밝혀진 대학만도 2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 많은 대상종 본교가 회색암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4일자로 문교부는 본교

군건한 총학의 전통 세워라
경주 제6대총학 출범에 부처

경주 제6대 총학생회가 어제(5일)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의 임기에 들어갔다. 선거시기의 이월로 여년에 비해 6개월로 짧아진 임기를 안고 출범하는 총학이지만 이미 선거과정에서의 높은 참여율과 지지도로 보여진 바 있듯이 이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들이 해야 할 일 만큼이나 남다른 것이다. 학원자주 입수의 기치아래 이들이 당면과제로 설정한 지적 권의 확립과 학생운동 역량의 강화는 한두사람 총학집행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이들의 임기안에 끝마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주캠퍼스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노력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일기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의욕적 출발과 높아지고 있는 단결의 기운은 자못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총학생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생자치기구로 단결의 구심점으로 서기 위해서는 회

“자성과 슬기로운 화합으로 사태 해결하자”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못다한 말”

일전의 교수회는 전례없이 많이 참석하여 큰 강의를 가득 메웠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사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자 부끄러운 사태로 가슴 아픈 상처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자로 문교부는 본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문교부 특별종합감사는 13년만의 이례적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무수한 에측들을 낳았으나 결국 한국의 대학사상 초유로 총장과 이사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번 구속사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공안정국과 맞물린 학자부 탄압책동이라는 것, 조계종대내 암부의 산물이라는 설, 또는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쟁자들 간의 모략에 의한 것이라는 등 갖가지 분석들이 있으나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파국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어쨌든 그동안 가려왔던 본교의 치부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고 비통해 하지 않는 동국인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학원과 종교는 기본적으로 지나야 할 도덕성으로 인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명 본교는 종교와 학원이 결합된 만큼 그 도덕성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이번 사태에 인해 더욱 충격과 여파는 타교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고, 고강도의 징계라는 데 있어 앞으로는 정물수 없는, 치욕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차치하고 「왜 우리학교가 부정입학이 돼야 하는가?」라고 따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방안일 수 없다. 분명히 본교보다도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대학이 있고 부정입학이 밝혀진 대학만도 2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 많은 대상종 본교가 회색암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4일자로 문교부는 본교

체가 불미스러운 입학 부정이 되고 보니, 보직교수들에게도 안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총장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덕담과 신심을 대표하는 스님총장으로서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피쳐져 왔을 까 생각하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생기고, 더구나 육교의 몸이고 보면 딱하게까지 느껴진다. 총장 측근의 한 실장조차 1시간 30분 전에야 사태의 진상을 알았다고 하니 일반 평교수들이야 가물게 모르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저녁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일련 배신감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 교수들이야 사건의 진상을 신문 특

체가 불미스러운 입학 부정이 되고 보니, 보직교수들에게도 안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총장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덕담과 신심을 대표하는 스님총장으로서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피쳐져 왔을 까 생각하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생기고, 더구나 육교의 몸이고 보면 딱하게까지 느껴진다. 총장 측근의 한 실장조차 1시간 30분 전에야 사태의 진상을 알았다고 하니 일반 평교수들이야 가물게 모르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저녁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일련 배신감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 교수들이야 사건의 진상을 신문 특



을 알았다고 하니 일반 평교수들이야 가물게 모르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저녁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일련 배신감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 교수들이야 사건의 진상을 신문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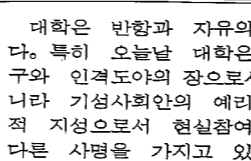
金東俊 <사범대교수·고전시가론>

총장석방요구는 교수들이 발휘하는 도덕심의 발로
동국의 각 주체... 교수회의 「공대위」참여 기다려

자 이상의 정보를 갖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바로 그 실상의 실로였다. 보직자의 쪽에서 본다면 그사 이 학교행정을 총장에게만 맡기고 싶고 노력으로 학교행정에 임하지 못했다는 뜻을 되풀이해 필발이고, 총계발해서 총장이 혼자 해결하려 했다는것은 그일 정한 사건임에 비추어 동국대학의 총장이 그사이 얼마나 독주해왔고, 필패된 학교행정과 경영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된다. 도하 각일간신문에는 연일 비판과 질타의 높은 목소리로 전면 돌을 내보내고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 앞에 입이 열려야 할 말을 잃은 우리 교수들은 활활을 찾아 보자고 교수회를 소집하고, 여기에 모여든 교수들은 참가자를 방문하는 기분으로 겸손과 자제를 잃지않고려고 스스로 다짐했다. 지금 이마당에서 시비를 따지고 목적을 들뜬다는 것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기 일전을 다지면서 뼈아픈 자성과 슬기로운 화합의 목소리가 사대를 극소화하는 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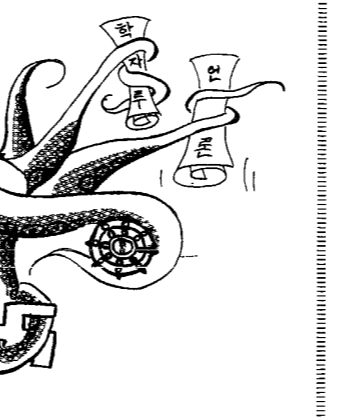
에게 던져지고 이어서 「그 결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으니가면 말 이 나오지 않아요」하고 의문을 주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보 조 사회는 얼얼하게 되면서 「아 가 제 말씀은 취소하겠습니까?」 하고는 당황하면서 몇몇을 불러내, 의장은 「기타 토론을 없 습니까?」 그러나 없는것으로 알고 총장을 선언하였습니까?」고 황급하게 방방미를 두들겼다. 「풀어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 는다!」는데, 사태가 다급하지 않 다는 말인가. 이미 총학생회, 지

대회의 반향과 자유의 표상이 다. 특히 오늘날 대학은 학원연 구와 인격도야의 장으로서만이 아닌 나라 기성사회의 예비한 비관적 지성으로서 현실참여라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졸품 독재정권 지배아래 놓여 있었다. 대학에 대해서는 학 원상주 경향이 없지않아 생긴 가장 전형적인 학원사학을 당하고 있었다. 학교 근처 경찰서에서 는 요일별 등교하는 학생수가 적 지도 파악하고 있었고, 집회 주 동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불 태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이 다. 또한 5월 그 생각하기조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학원 연 대한 탄압은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 부산 동아대에서는 학생 상주 경찰이 없지않아 생긴 가장 전형적인 학원사학을 당하고 있었다. 학교 근처 경찰서에서 는 요일별 등교하는 학생수가 적 지도 파악하고 있었고, 집회 주 동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불 태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이 다. 또한 5월 그 생각하기조차

東國漫評



◇아직도 써먹을 바이 남았지롱!

학원침탈, 대학 자율성 확보로 극복

정권 하에서의 대학에 대한 탄압을 제거하고라도 6·29선언으로 민주화로의 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6월에 서는 어대인가? 결코 이전 상황 보다 학원이 탄압을 덜 받는다거나, 자율성을 더 확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발전된(?) 허울좋은 공권력으로 학원을 침탈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실 집 것은 민주화의 행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6월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여 어기는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 이시간까지도 공공안녕(?) 정국을 이끌어오고있다. 학원에서 자다가 테러당했다.

김희원 <이과대 화학과>

최근의 동국대학교 사태에 즈음하여

8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종립학원인 본 동국대학교에서 어느 대학보다도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대학입시에 부정이 게재되었다는 이번 발표는 국민들은 물론 우리 교수들에게도 실로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양심으로 사회를 계도하고 가장 신뢰받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수일동은 오늘날까지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대학의 도약적 발전을 염원해오신 동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이 있어야함을 공감하고 심기일전하여 보다 새로운 학문적 분위기의 창출을 위해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1989년 9월 3일 동국대학교 교수 일동

고대불교문화의 寶庫 '비단길'

고대의 동서문화(東西文化)가 교류 접촉하던 길을 비단길, 이른바 실크로드라는 말로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로마와 이란·인도의 서방문화가 서역·중국·한국 등 동방으로 들어오고, 동방



文明大 <예술대학교수·불교미술사>

의 문화가 서방으로 전파되던 교통로상에는 이들 문화가 교류 접촉하면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수많은 유적들이 혹은 명승에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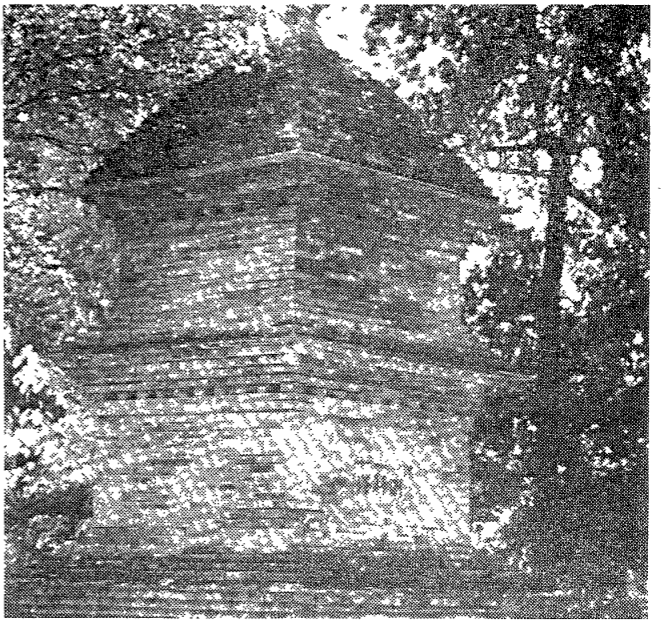
실크로드를 가다 ③—불교미술 <마지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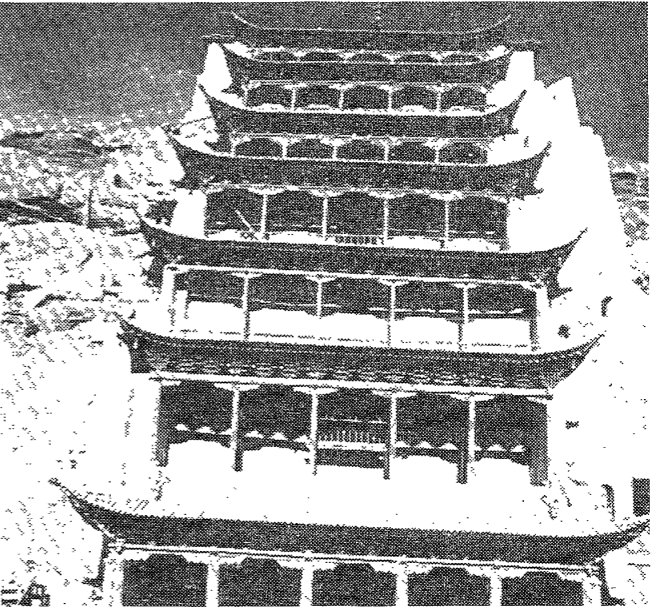
◇병령사 석굴



◇교하고성



◇흥교사의 원축법사탑



◇돈황막고굴

서안 흥교사...신라승원측의 사리탑 눈길끌어 돈황 막고굴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나와

불교 혹은 파파된채 아직도 옛 영광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실크로드문화는 불교문화가 대표하고 있다. 그리스 로마와 이란의 서방문화는 인도의 불교문화와 교류하여 간다라 불교문화로 창조했고 이 국제화된 불교문화는 서역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더욱 발달 다양한 국제적 불교문화로 융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크로드상 의 문화유적들은 당연히 불교문화유적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1985년부터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유적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파키스탄의 간다라학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동서문화의 실크로드」라는 책을 펴내 2권을 출간했으며 이어 인도학술조사단을 일관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꽃은 서역(西域) 지방이다. 서역은 동서문화의 교류지이자 매개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동서문화가 교류접촉하면서 창조해 낸 독특한 문화도 찬란히 꽃피웠던 곳이다. 이 서역지방은 역대 통치자들이 인도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독자적인 독립국을 형성했거나 중국이나 북방민족의 지배하에 있기도 한 복잡다단한 역사를 경험해왔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을 중국에서는 신강 위구르자치구(新疆自治區)라 하며 흔히 新疆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번 우리 동국대학교는 중국 불교문화유적학술조사단을 구성(사학자 曹永壽, 불교학자 曹永壽, 지리교육과 邢基植교수, 鄭錫)하여 KBS 취재반과 합동으로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1달간 이어 걸쳐 실크로드상의 불교문화 유적을 상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서안(西安)까지는 여러 사람이 다녀왔고 문왕까지도 몇 사람이 다녀왔지만 그 서쪽인 진자 서역(西域)에 발을 디딘 것은 우리 조사단이 고대 이후에는 처음으로, 특히 학술 조사단으로서의 역사상 처음이어서 그 의의는 지대하지 않나 한다. 여기서서는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하게 된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상세한 것은 곧 출간될 보고서와 10월에 열리는 자료전시회를 그리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방영되는 KBS 1방송 西域紀行 3편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 서안(西安)의 불교 문화유적

서안(西安)은 진·한(秦·漢) 이래 역대의 수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천년고도(千年古都)로 지금의 장안(長安)이다. 특히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오는 서방의 문화를 위시해서 세계각국의 문물이 몰려들어 밀려오다시피 이들을 종합하여 재창조한 문화가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간채 최고 의 국제도시였다. 따라서 서안이야말로 실크로드의 중국측 종착지로 각광받았던 것이다. 이 서안에는 수많은 유적이 있었다. 특히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화의 전파와 직결된 유적들이 많이 있다. 현재 대안탑은 거대한 전탑인데 원래 대자온사(大慈恩寺)의 불탑이었다고 인도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수많은 인도의 불경을 중국에서 번역해서 봉안했던 불탑이었으나 문화전파의 유명한 유적이 분명하다. 이 역경사업을 주무렸고 직

접 실크로드를 왕복했던 현장 삼장법사의 사리가 봉안된 탑이 흥교사(興教寺)인데 여기에는 현존하는 제자 사리 상체를 이루는 대좌자인 우리 신라의 원축법사(圓測法師) 사리탑도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유난히 끌었다. 이외에 역시 역경강으로 유명한 소인탑·정동사·파염사등은 실크로드와 지대하게 관련된 불경(佛經)이다.

2. 난주(蘭州)

이어서 우리는 난주로 갔다. 난주는 감숙성의 성도(省都)로 현재는 공업도시로 유명하나 옛날에는 서역으로 통하는 관문격이었다. 난주에서 서안쪽으로 유명한 맥적산(麥積山) 석굴이 있고, 서쪽의 산(麥積山) 석굴이 있어서 동서문화의 교류를 실감나게 하는 곳이다. 난주에 도착한 이튿날 120km 떨어진 병령사(炳靈寺)를 찾았다. 병령사석굴은 황하의 상류에 있는 유기형 암굴로써의 끝부분 기암괴석이 웅장한 절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 180개의 석굴이 1천 5백여년간 개척되어 776구의 불상이 조성 봉안되고 있다. 맥적산석굴은 보리를 쌓아놓은 듯한 기이한 암산이 우뚝 솟아있는 깎아지른 절벽을 뚫고 파서 수많은 불상과 벽화를 봉안하고 있다. 이들 석굴은 모두 인도·서역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인 관공자 매개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한 곳이었다. 난주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서북으로 한없이 달려 주전(周轉)에 도착했다. 주전역에는 진·한때부터 흉노와 접전한 서북 변방이었고 한(漢)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최전선으로 흉노를 격파해서 드디어 실크로드를 통했던 관문이기도 했다.

만리장성의 종착 관문 가옥관도 있고, 위·진시대의 많은 벽화도 남아있으며, 여러 석굴유적들까지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진·한시대의 만리장성의 토축이며, 명나라때 축조된 가옥관과 그 일대의 장성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3. 돈황석굴(敦煌石窟)

주전에서 하서회랑(河西走廊)이라는 중국과 서역을 이어주는 유일한 기차길 통로(通道)를 지나 돈황에 도착했다. 돈황(敦煌)은 서역과 그 너머 인도·이란 로마로 들어가는 중국측 항구였다. 여기서부터 실크로드 3대루(三大路)인 천산남로(天山南路) 천산북로(天山北路) 등 세 길 가운데 어느길로도 갈수 있는 요충지이므로 실크로드상의 군사 경제 문화의 핵심도시로 각광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실크로드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어서 옛부터 불교문화가 찬연히 꽃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황 막고굴(莫高窟)이다. 이외에도 유림굴등 많은 유적이 남아있지만 이 막고굴은 원래 1천여년 이상 1천여석굴이 조성되었고(전존 492굴) 현재 2,500구의 불상, 1,045폭의 벽화가 남아있어서 석굴사원의 위용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풍부한 벽화와 불상들은 불교문화의 동서교류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미술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증언하고 있는 뿐더러 우리나라 미술과도 관련성이 깊어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적들과 유물들이 쏟아져나와 인류문화의 보고(寶庫)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우리 신

라스님 혜초(慧超)가 남긴 3대 인도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이 이곳 장강굴(藏經洞)에서 발견되어 우리선인들이 실크로드상의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4. 투르판(高昌國)

돈황에서 황량한 사막을 지나 서역(西域)의 중심지로 들어갔다. 서역, 동쪽의 중심도시 투르판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타르마라칸사와 가운데의 한 오아시스 도시이다. 오아시스를 중국말로써 綠洲라 하는데 재밌사마 가운데 투르판처럼 보이는 투르판이라는 뜻이다. 우리일행이 머물렀던 호텔이 바로 오아시스호텔이라 綠洲賓館인데 투르판에서 열리는 호텔이름이라고 수공예품이다. 이 투르판 시가를 중심으로 동서에서 고창성(高昌古城)과 교하고성(交河古城)이라는 두 옛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성은 옛 투르판국의 수도였고 이 지역을 통치했던 중심도시였으므로 수많은 불경(佛經)과 유적들이 남아있다. 고창성의 북쪽으로는 화원산과 천산이 전개되고 있는데 서역(西域)에 나오는 현장과 손오공의 이야기가 전개된 현장이기도 하다. 불교도 있는 듯한 화원산 언저리에는 유명한 석굴이 세곳이나 있는데 이 가운데 베제크의 절벽에 가장 유명하다. 계곡의 절벽을 거꾸로 흠뻑물을 축조해서 만든 석굴로 우리나라로 한산 석굴의 시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불적이며 이 벽면에 있던 벽화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끌고있다. 서역일대의 석굴이 다 마찬가지로

지지만 서양열강과 일본의 약탈 때문에 참혹한 불골로 변했지만 이곳 석굴은 대략적으로 수난을 입어 현재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5. 쿠차(庫車)

현대의 신도시 쿠차라를 거쳐 사막의 요충지 비단길(천산남로)의 중앙부인 쿠차로 갔다. 당나라때 서역도호부(安西都護府) 설치되어 서역전체를 통치하던 서역의 중심도시였다. 원래의 쿠차 국 성은 반화하기 짝이 없었으며 불교사찰들이 즐비하여 1백여개가 넘었고 승려 5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작은 사막의 오아시스 왕국치고 내대한 번성이 아닐수없다. 신라의 혜초스님도 들어오는 길에 이곳을 들러 불경(佛經)들을 순례하면서 기록을 남기고있어서 당시의 변화한 쿠차성의 실상을 알수 있다. 이 성의 서문 밖에는 유명한 30미터 되는 거대한 일불상(立佛像)이 있었고, 절경의 기암괴석 암벽을 뚫어 만든 수백개의 석굴을 가진 키석굴도 있으며, 름트라 석굴이나 쿠차라호석굴도 있다. 쿠차강의 상류에도 소호리사원지가 대안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두곳에 동서 소호리절이 전개된 것이다. 현장스님도 놀라 찬탄해 마지 않던 웅장한 대사원의 위용이 오늘날에는 흙더미의 폐허로 변해 버려 무상의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다.

6. 우루무치

서역인 신강의 수도 우루무치는 현대에 완성된 신도시에서 옛 유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주위로는 황량한 사막속에 돌연히 전개된 몇몇 별천지가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하다. 서양구라는 천산의 북쪽에 유명한 목장지대와 거대한 폭포수가 있고, 백무산(天池)과 흡사한 우루무치 천지(天池)가 있어서 이곳 사막사람들의 낙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전 서역지방의 유적에서 출토된 중요한 유물들이 보관되어있는 이곳 신강박물관에 집중되었다. 실크로드의 상징인 비단과 불상, 금속공예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7. 운강석굴

우루무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눈덮인 신비의 천산을 내려다보면서 북쪽까지 직행 다시 대동시공회의 운강석굴에 도착했다. 불교문화의 제1성지라고 회자되는 북위시대 때 축력을 기울여 완성된것에 조성한 석굴이어서 장엄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석굴안에는 수많은 불상과 불화들이 현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북·서·남을 상징하는 4대 보살상을 배치하고 있어 이 실크로드 학술조사의 마감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다.

동국의 자긍심부활과 올바른학문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정의의 불꽃, 자유의 횃불, 타오르는 등악은 영원한 민주학원!" 1906년, 민족자주의 깃발을 내걸고 뜻있는 선각자가 세운 민족사학의 거목인 동국대학교 / 동국83년의 역사가 민족사학의 순결성을 지켜온 고난의 역사이었음은 우리는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 동국의 현주소가 민족사학으로서의 간판을 내걸고 출발한 초창기에 비해 결코 자랑스럽지않은 실상은 단적으로 여지껏 우리가 만들어 가꾸어 온 자긍심 뒤편으로 그것을 감아먹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분적인 도덕성마저 상실한 어용과 무능, 부패의 존재들은 구악을 되풀이하면서까지 신성해야 할 동국의 상야탑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부정입학건으로 총장, 이사장 전격구속." 지금 우리는 교정에 무겁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동국의 현실로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 참인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학문정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야 할 교수님이자 순결해야 할 선지자로서 '부정입학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동국인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동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변명을 하기전에 국민과 천만 불자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몇명의 책임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을 이전하기 이전에 어떻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동국의 현실을, 우리 모두를 질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잘못된 한사람의 구술으로 단편화시켜서 불 것이 아니라 동국이 갖는 특수성 속에서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내의 고질적인 인맥파벌의 난맥으로 오랜동안 주입된 동국의 현실속에서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앞장서온 역대 군사정권이 조직적이며 음모적으로 저질러온 불교탄압과 불교계 내부조장의 한 결과임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가슴스러운 것은 광주 민중을 총칼로 살상하고 정권을 장악한 노태우 행정권의 음모가 이번사태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월 2일자 중앙일보의 특기사 '6공정권 2기 사회개혁착수'는 제하의 기사내용은 현 정권의 정국운영구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중에 「사학부조리 척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부조리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파행적 교육정책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권의 정국운영 구도의 포악으로 「동국대 사태」를 음모적으로 준비하고 여론조작을 통해 총격적으로 터뜨림으로써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음모입니다. 교육계의 도덕성

과 권위를 뿌리채 흔들며 버림으로써 총칼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사학부조리 척결」은 이제 태풍과 예측에서 온몸으로 밀쳐 들어나려는 대학의 자주적 노력과 자율성을 짓밟으려는 정치적 쇼에 다를바없습니다. 교육과 신앙과 상식을 뿌리채 뒤엎어 버리려는 새로운 학원탄압이며, 법안이며, 공포정치와 발현된 것입니다. 죽어도 내릴 수 없는 학원자주의 깃발을 힘껏 움켜쥐고 동국인 여러분!

이번 사태로 어찌하였던 간에 동국의 자긍심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국의 참된 건학이념과 학원자주의 열망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한번 분열하여 질곡의 나락으로, 동국체제의 늪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단결하여 동국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국혁신의 획기적 계기로 반전시키느냐 하는 전환의 시점에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자랑스러운 1만 동악의 학우들은 다시는 이러한 오욕의 전철을 되풀이 않기 위해서라도, 학내부정비리 은상인 무능어용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정을 휘젓는 행정권의 검은 손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교수님과, 직원들과, 저의 학생들과, 8만 동문들과 그외에 동국을 구성하고 있는 학내의 주체들과 일치단결하여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깃발아래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동국의 자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확신하며 동국사학, 민족사학의 실천을 통하여 다시한번 힘찬전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이러한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단순무마적 차원이 아닌 냉철한 사태수습과 다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동국의 광장에 재현되지 않도록 학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파헤쳐 무능어용세력의 혁신을 위한 과감한 손질을 하여 찬연했던 동국의 제 빛을, 허공에 맴돌던 만해선사의 손상된 정신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권에 엄중히 경고하노니 이러한 우리의 합심된 노력을 정권의 영부새인 관제언론을 통하여 학내소요로, 분규로 축소 왜곡남조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학원탄압이 실제화되었을 시 우리 동국인은 천만 불자와 합심하여 정권의 잔악한 음모에 맞서 분연히 밀쳐 일어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동대책위의 기치아래 자주동국 건설하라

학원자주화투쟁2년 동국대학교제21대 총학생회

I. 들어가는 말

피롤이탈해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국내외 학계의 연구동향과 국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분단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민족자주의 의식 고고와 이어지면서 변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보다 사실적이고 총체적인 한국전쟁의 이해는 통일운동에 주동해나가야 할 세대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역사적인 과업인 것이다. 이에 필자는 민족통일운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적 대미 종속화를 규정짓는 대결적인 계기가 된 전쟁의 실제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전쟁과정에서의 제사자들은 전쟁의 성격과 전쟁주체들의 이해의 요구를 더욱 뚜렷이 해주기 때문에 지난호에 개제된 내용(전쟁발발직후부터 중국군의 개입까지)에 이어 51년 이후의 미군과 유엔군의 무자비한 폭탄폭격과 유엔군의 개입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함으로써 3차대전의 발발위협성을 크게 내포하는 국면으로 만든다.

II. 물살작전과 세균전

51년 이후의 미군과 유엔군의 무자비한 폭탄폭격과 유엔군의 개입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함으로써 3차대전의 발발위협성을 크게 내포하는 국면으로 만든다. 자신의 판단과는 달리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자 맥아더-필레스토 이어지는 미중과 당 강경파들은 전쟁확대론을 내세워 압축강을 넘어 전쟁을 확대시키는 한편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공중폭격, 장제스 국민당정부군의 본토상륙, 중국해안 봉쇄 등을 적극 주장했다. 맥아더는 자신의 계획을 「교살작전」이라는 이름에 보다 구체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군의 보급선을 격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우선 넓은 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공공격을 수행하고, 서울을 탈환하여 장래의 작전기지로 한다. 셋째, 다음으로 북한전역에 대한 공습을 가하여 적의 후방을 분쇄한다. 압축강 이북의 적 보다는 다리의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을 적의 보급로에 살포하여 한국과 단추를 차단한다. 넷째, 허용된다면 국부군(대한군)을 사용하여 미군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복속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중작전을 동시에 행하여 적을 커다란 함정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맥아더의 이와같은 전쟁확대론은 영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소련의 전쟁개입을 우려한 미국정부에 의해 저지되었다. 마침내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1951년 4월 11일)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미국영향 아래서의 통일노선으로부터 교섭에 의한 전쟁종결노선으로 바뀌어 유엔전쟁이 본래의 목적을 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거꾸러져서 볼때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것은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북한전역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게 되고 세균전공을 살포한다. 미국은 세균전공을 무자비한 폭격에 불과하며 「북한과 화해의 전염병은 그 지역의 원시적 생활조건, 불완전한 위생시설, 불충분한 의료의 결과」라고 반박하였지만 1952년 6월 이후부터 개제된 세계평화회의의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

인의 중립적인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과학 조사단이 발족하게 되고 연구결과와 최종결론을 내렸다. 『본 조사단은 결론으로서 미공군은 일본군이 제2차대전 중에 장티푸스를 퍼뜨리기위해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동 조사단의 의견으로는 장티푸스에 감염된 쥐가 비행기로부터 낙하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미공군이 세균전을 자행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 계속 위협을 가함으로써 유엔회담을 유리

하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정권은 사건의 주도자였던 신성모를 해임하고 살인주범들중 극히 재판가능한 범인 11명만을 모두를 석방시켜 경정교위간부로 다시 기용하였다.

IV. 전쟁중의 남과북

전쟁은 전쟁전 15만을 약간 웃돌던 남한의 군사력을 전쟁중 70만명으로 증강시켰고 전후 60만 대군의 병력을 제도화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은 일제시대의 수탈과 더불어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을 통해 이미 피폐된 경제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그로말미암아 내미의 합동작전 명령지침은 결국은 지역 주민과 그들의 생활

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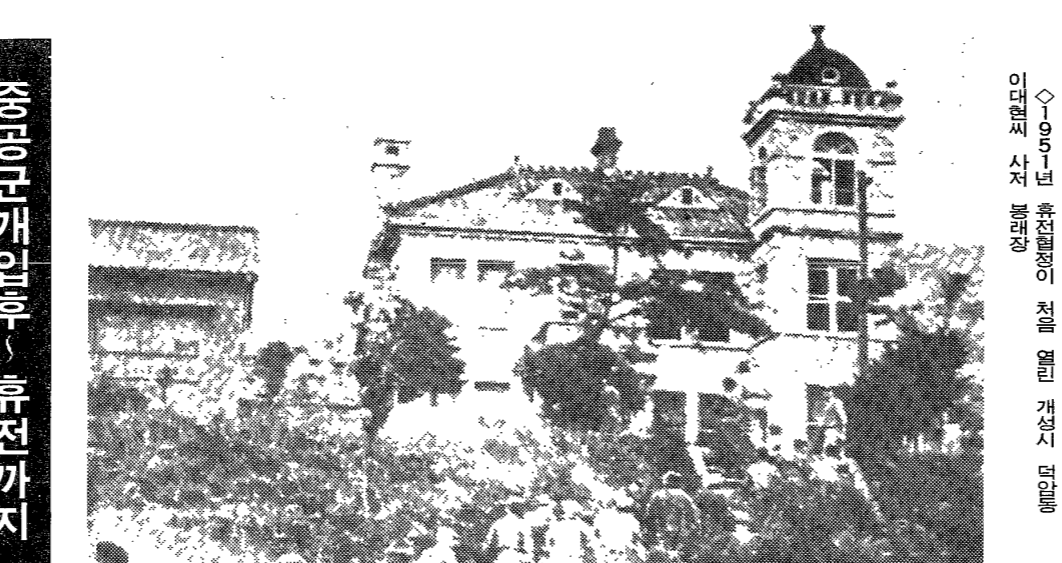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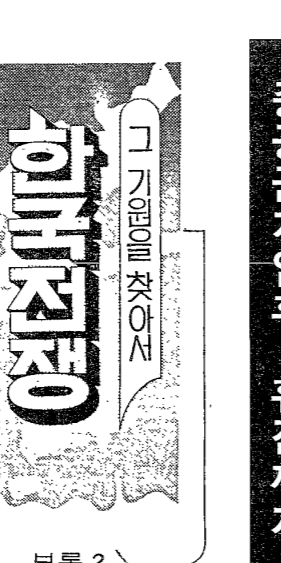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한반도는 미국의 이익위한 "희생양"이었다



이제부터는 유전까지... 미군세균살포... 한국군개입후 유전까지

미군의 세균살포... 「국제조사단」이 증명 반공포로의 석방... 제네바협정에 위반

하게 이끌기위한 의도였음이 명백해졌다.

III. 유격전과 민중의 입장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북한군은 장기항전 태세를 도입하게 되었고 일부는 계속 남한지역에 남아 유격전을 벌였다. 험준한 지리산 일대를 거점으로 하고 노령산맥의 이동무대로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유격대의 토벌을 위해 새로 육군제11사단 창설, 남원에 사단본부, 전주에 제13연대, 광주에 제20연대, 진주에 제9연대를 미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감행한 직후인 10월 초에 각각 배치했다. 그러나 대규모의 군대투입에도 불구하고 유격대의 토벌은 용이하지 않았다. 유격대반 분시 민중의 지원없이 유격대는 차차치고 생존자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유격대가 상당한 세력 과 전투력을 지니고 싸우다가는 것은 지역내, 민중과의 협력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

터전을 발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군들이 선보인 살상작전을 계승한 유격대 토벌계획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격대와 민중간의 밀접한 운명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자신들의 토벌작전은 더욱 반민중적인 수법으로 빠뜨리고야 말았다.

대표적인 집단살상공격은 거창군 신원면에서 벌어졌는데 토벌군은 마을주민 8백~1천여명을 파견된 소대 신원국민학교에 집단수용시켜놓은 뒤 다음날 이를 주민중에서 군인적 기질을 가진 유격대원 1백87명을 골라내버려 나머지 주민을 집단살상한 후 시체는 휘발유를 끼얹어 불태워 버렸다. 무려 6백여명이 넘는 숫자였다.

그리고 토벌군은 학살된 사람의 숫자를 1백87명으로 줄이고, 대상 또한 모두가 공비만 공비와 내통한 분자는 하위보급을 연대여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결코 그렇게 수 없었다.

학살의 진상은 계속되는 전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외의 학살은 미군에 대한 그외의 분노는 감할 수 없이 치솟아올

승만의 반대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유전 수락조건으로 중공군 철퇴, 북한의 무장해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등을 내놓았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전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의 주도 아래 유전회담은 진행되었다. 유전회담의 의제중 유전선 문제는 공산군측이 38도선을 주장한 데 비해 다소 북진하고 있던 유전선측은 양측의 접촉선을 주장하여 맞섰으나 공산군측이 접촉선에 동의함으로써 타결되었고(1951.10.31) 감시기관 문제도 유전선측이 추진한 스페인, 스위스와 공산군측이 추진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의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유전회담의 최대관건은 포로교환문제였다. 유전선측이 제출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포로수는 13만 2천 4백 74명이고 공산군측이 제출한 한국군 포로수는 1만 1천 5백 59명이었다. 이들 포로 중에는 환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문에 유전선측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동을 할 것을 주장했고 공산군측은 모든 포로가 그 본국

이러한 전쟁과정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은 그외의 분노를 감할 수 없이 치솟아올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같은 한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이

동국재건을 위해 한마음으로 떨쳐 일어나자!

현 사태를 대처하는 노조의 입장

동국인 여러분! 일제하에 불국정토구현과 민족해방·민중구원의 정신으로 개교한 민족의 사학 동국대학교가 현재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동국의 자존심과 공신력이 실추되고, 대내적으로 동국인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바, 우리 노조는 직원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입시에 연루되어 행정의 중립성을 잃고 지켜내지 못한 사실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동국인 모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번 사건을 동국이 민족사학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원들은 이번 사건을 교육의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교육부조리임을 자인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대학의 임시부정 사태가 언론에 빈번히 오르내리면서도 정부의 사후처리는 국민들의 의혹만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몇몇 대학이 공공연하게 임시부정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엄청난 거둬가면서 사학지원원을 의면해 하는 거대한 예산을 사학 비리의 근원을 제거하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정부당국이 빈사상태의 사학재단을 구제하려는 노력 한번 기울여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역대정권은 사학재단이 학교재정을 기형적·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면서 오히려 교육정책수립과 사학지원의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듯 채,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해 사학의 약점을 잡아 충실한 심복으로 잡아두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유례없이 대학총장을 구속함으로써 대학의 도덕성과 권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놓은 단순한 사학비리 척결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정부의 부당공공의 학원탐압 음모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 입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모든 동국인에게 호소드립니다. "정부의 학원탐압음모에 하나된 마음으로 결사항쟁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동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권력의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모순구조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너무 아파하여 조속한 일시적 치유책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면 언젠가 다시 지금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

울 것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만 동국의 참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동국의 혁신과제를 몇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단과 학교당국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고 건전한 학교운영과 혁신적 발전의 튼튼한 초석이 되도록 재구성합니다.

둘째, 학교의 발전이 학교당국과 몇몇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학내·외 모든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행정담당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와 국가·민족을 위해 기여할 양식있는 지식인·전문인 육성에 있는 바, 참된 교육내용을 담보할 구조를 마련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동국재건을 위해 한마음으로 떨쳐 일어나십시오!"

현재 동국이 처한 위기상황은 침체의 늪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혁신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기로일 것입니다. 동국인이 지향하여야 할 길은 당연히 혁신적 발전의 길이며,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시켜줄 유일한 방법은 전 동국인의 일치단결된 힘을 결집시켜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학내·외 모든 주체에게 「공동대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전 동국인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사법적 책임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규명될 것을 촉구합니다.

1989년 9월 4일

동국대학교 노동조합

서창훈 기자

記者放談

문교부의 학자투 와해공작·어론후도 측면도

지난달 31일 신임생부정 임명과 관련, 이관총장·학정경이사장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교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에 이번 사태의 경위 및 각계의 반응을 밝힘을 통해 취재기자들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주>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우리 東大는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과 학정경 이사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것이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총장 선거와 관련된 재정치권 논란을 안고있는 가운데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이에 일선에서 취재하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태의 발생배경·원인·각계의 반응·사건당인의 상황·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문교부감사의 배경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문교부특별감사단의 배경은 불교계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보인다. 현 총무원장과 종정위원장 내면으로 만료됨에 따라 불교계 내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을 때려다, 혹은 하나라도 인신여자를, 현 이사장은 일선 분당부동산 투기, 범사문제와 관련된 검찰로부터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문교부의 타대학 감사에 연루해서 끝내는 본교가 특별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이사장 구속 의미

이번 사건을 학교측에서 볼 때는 학자투 와해 공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총장·이사장의 구속은 공안정국 상황속에서 안이해될 수 있는 일로서 현 정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후 과반 선임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사행정 참여를 제지하려는 구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대학의 경우에도 부정임명은 공평연한 비탈로 되어있는데 유독 본교를 대상으로 한것은 현실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이러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불교계 탄압의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정권은 삼당이나 교외종에는 공권력투입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불교계에는 10·27법난 사태내 공권력 투입을 자행해 왔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문교부가 전교조문제와 관련, 여론의 비판을 받아 이번 사태를 계

기로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장·이사장 구속당시 학내 상황

지난달 31일 저녁 9시 TV 뉴스에 속보로 이번 사태가 처음 보도되자 몇몇 교수님들과 학생·직원들이 속속 학교에 모여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 11시40분경 일간지 기자들이 학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 보직교수님들이 직원들에게 기거를 요청해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귀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보직교수님들은 새벽 1시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공권력



개입 가능성에 따라 1시간 뒤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교수님

학생 학사행정 참여 제지 의도 보여 사태수습과 사후 명예회복 논의로 부산

개입 가능성에 따라 1시간 뒤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교수님

참석자: 김 일 취재부장

이만섭 취재부 차장
박영란 논설부 차장
이진형 학술부 차장
유권준 특집부 차장
서창훈 문화부 차장
장 소: 본사 회의실
날 짜: 1989년 9월 4일

들의 입장은 3일에 있었던 전체교수회의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대위에 대한 것은 일부교수들의 제지로 토론도 이루어 지지않는채 대국민 사과문과, 열렬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당국에 보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려는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문교부의 모교수님은 회의장을 나가는 일도 있었

대로 학생들의 소리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사건당일 일부 교수님들이 수업을 보이콧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각계의 반응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의아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일 열렸던 집회에서는 약 1천여명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측은 이번 사건을 학원단위의 적시호로 보고 교수·학생·직원·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하고, 이 공대위에서는 민주적 총장선거제도가

제안하고, 이 공대위에서는 민주적 총장선거제도가

이런 사태로 본 학교 행정의 문제점

총장 구속후 이장배 대학원장이 학·처장회의를 주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근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학·처장회의가 실질적인 중앙행정의 모든 책임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목성으로는 경주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경주캠퍼스가 소외돼 왔던 학교행정이 2년 전의 퇴각행이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습 및 대책

앞으로의 전망은 교수회의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공대위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 직원 등만이 참여하는 힘없는 공대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교수님들까지 참여해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와 재단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공대위를 구성, 우리 東大의 자주·혁신의 기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립이지만 본교 출신 사회과학대의 모교수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제왕에서 한탄을 하시며 끝내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며 격렬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기록·정리=이진형기자>

해인사에서 간부님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해인사에 공원관계자와 경찰은 물론 모든 관공과와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불불법·석빙의 대응불공순회회들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본 학교 행정의 문제점

총장 구속후 이장배 대학원장이 학·처장회의를 주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근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학·처장회의가 실질적인 중앙행정의 모든 책임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목성으로는 경주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경주캠퍼스가 소외돼 왔던 학교행정이 2년 전의 퇴각행이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습 및 대책

앞으로의 전망은 교수회의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공대위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 직원 등만이 참여하는 힘없는 공대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교수님들까지 참여해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와 재단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공대위를 구성, 우리 東大의 자주·혁신의 기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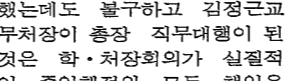
앞으로의 전망은 교수회의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공대위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 직원 등만이 참여하는 힘없는 공대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교수님들까지 참여해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와 재단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공대위를 구성, 우리 東大의 자주·혁신의 기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공기속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은 갖가지 병고(病苦)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도 사람과 인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은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달하나 千江에

曹 勇 吉

<불교대교수·불교학자>



육체의 병인 신명이나 오한, 부수법, 삼처, 오장육부의 병등이 있고, 마음의 병인 노복, 주벽, 불평불만, 우울증, 조울증 등등 심인성(心因性) 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고는 보다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흔히들 요산요수(尿酸藥水)라 하여 산을 찾고 물을 찾아 심신의 괴적함을 발휘시켜야하는 것을 요즘은 염산염수(鹽酸藥水)라 산과 바다를 찾아가 겁이나고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 공해 문제도 그렇지만 공해와 더불어 썩어지고 비틀어진 심정들이 부추려 남치다 매마더 명멸거리베에다 노예화시키는 복직한 보도는 가히 사회의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결과로 상징하고,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원인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추궁하여, 보다 높은 이상과 현실타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르침을 편편이 부추립시다. 사람의 병인(病因)이든 사회적 병고(病苦)이든 그 원인이 자를 따르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 자신의 무명(無明) 때문이다」 하여 그 병원체를 보여주었다. 무명이란 밝음(明)이 없다(無)는 뜻으로, 없다는 말은 거슬린다. 등진다.

살아보지 못한다. 착각한다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배움을 등지고 거슬리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밝음이 없는상태 밝음이 아닌 상태를 무명이라 일컫는 것이다. 밝음은 지혜롭고(慧) 고요하고(寂) 어둠이 이 땅의 수많은 민요와 민속을 매장하고 6·25라는 민족의 비극이 수많은 민요와 민속을 다시 한번 황폐화시키는 아픈 역사가 있다. 잊고 지내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는 아픈역사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작가는 단순한 안타까워 하며 주저앉아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요의 개념을 넓게 이통시켜 바쳐져가는 민요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민요를 찾는다는 것은 민요 속의 포착되어진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한 단계 발전된 민요 기행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민중의 삶에 의탁하는 작가의식 뚜렷

『그의 시가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문학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 전에 우선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마땅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민중적 경사라고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민중과 함께 하는 작가의 모습이 그의 作品世界를 그들과 함께 하는 호흡이 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의 민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정평이 되었다. 그의 시 곳곳에 보이는 민요적 가락과 감성은 이러한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진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 「민요기행」은 4년 전에 선을 보인 「민요기행」과 함께 변함없는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사랑이 시에서 散文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 지니지 않는다.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기행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많은 기행문과는 격을 달리 한다. 그것은 풍광풍은 마음의 경치이다. 보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진솔한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민요 기행 2

신경림 지음

한길사 펴냄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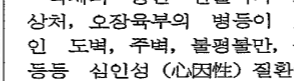
제화되어가는 것을 씁소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이를 보고 느끼는 서글픔이 바로 사랑이다. 박제화되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우리를 가슴 속

완전히 즐겁고(樂) 자유로운(自由) 것이 특이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탐이다. 본래 청정하기만했던 맑고밝은 성품에서 벗어나 갖지라를 근본무명(根本無明)이라 부른다. 이러한 근본무명은 생기지않았어야 할 것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생겼다) 해서 (오르는 걸(不覺)에 생겼다) 고도 한다.

離苦得樂의 길

曹 勇 吉

<불교대교수·불교학자>



사실 범부들은 「모르는 길」로 밖에 이해할수없는 것이니 우리들 인간사들이 이 무명속에서 고통받고 있기때문에 그 고통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떠한 설명도 고통의 한 정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생긴 근본 무명은 제 2, 제 3의 가지로 뻗어나 굽기야는 못가도, 울기또하는 현실로 이끌어 가고있다. 이렇게 반다하게 가지져 나온 무명을 지달무명(枝末無明)이라 부르고 있다.

근본무명이나 지달무명이나 그 특징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향상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삼 일고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속성은 무엇인가 나는 남과 다르고 달랠야하고 더 위대하여야하고 더 자기를 부추키기 때문에 분수가 지나치면 미혹의 업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번뇌는 그 순환복을 하는 데 이르러서 인간사는 그생사번뇌의 풀없는 율회의 도상에서 안수할곳을 잃고 발잡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집단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르침을 편편이 부추립시다. 사람의 병인(病因)이든 사회적 병고(病苦)이든 그 원인이 자를 따르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 자신의 무명(無明) 때문이다」 하여 그 병원체를 보여주었다. 무명이란 밝음(明)이 없다(無)는 뜻으로, 없다는 말은 거슬린다. 등진다.

살아보지 못한다. 착각한다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배움을 등지고 거슬리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밝음이 없는상태 밝음이 아닌 상태를 무명이라 일컫는 것이다. 밝음은 지혜롭고(慧) 고요하고(寂) 어둠이 이 땅의 수많은 민요와 민속을 매장하고 6·25라는 민족의 비극이 수많은 민요와 민속을 다시 한번 황폐화시키는 아픈 역사가 있다. 잊고 지내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는 아픈역사가 숨겨져 있다.

민중의 삶에 의탁하는 작가의식 뚜렷

『그의 시가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문학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 전에 우선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마땅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민중적 경사라고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민중과 함께 하는 작가의 모습이 그의 作品世界를 그들과 함께 하는 호흡이 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의 민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정평이 되었다. 그의 시 곳곳에 보이는 민요적 가락과 감성은 이러한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진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 「민요기행」은 4년 전에 선을 보인 「민요기행」과 함께 변함없는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사랑이 시에서 散文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 지니지 않는다.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기행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많은 기행문과는 격을 달리 한다. 그것은 풍광풍은 마음의 경치이다. 보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진솔한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민요 기행 2

신경림 지음

한길사 펴냄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제화되어가는 것을 씁소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이를 보고 느끼는 서글픔이 바로 사랑이다. 박제화되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우리를 가슴 속

민중의 삶에 의탁하는 작가의식 뚜렷

『그의 시가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문학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 전에 우선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마땅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민중적 경사라고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민중과 함께 하는 작가의 모습이 그의 作品世界를 그들과 함께 하는 호흡이 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의 민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정평이 되었다. 그의 시 곳곳에 보이는 민요적 가락과 감성은 이러한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진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 「민요기행」은 4년 전에 선을 보인 「민요기행」과 함께 변함없는 작가의 민중과 민요에 대한 사랑이 시에서 散文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 지니지 않는다.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기행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많은 기행문과는 격을 달리 한다. 그것은 풍광풍은 마음의 경치이다. 보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진솔한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민요 기행 2

신경림 지음

한길사 펴냄

6·25로 매장된 민요·민속찾아 발로 뛰어

제화되어가는 것을 씁소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이를 보고 느끼는 서글픔이 바로 사랑이다. 박제화되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우리를 가슴 속

동대광장

멋있는 동지 공연

극단 「형성」의 노래극 「멋있는 동지」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예술극장 한파당에서 공연된다.

이번연극은 여성노동자문화대동맹에 내보낸 작품은 새롭게 재구성한것이며 극단형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현장에서 작품들 만들어내는 극단으로 88년 노래극 「노동의 새벽」 「절대기를 벗고서」 등을 공연한바 있다.

집체극 공연

「집체극공연」이 총학생회 문화부·동아리연합회 문화부 주최로 7월 7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집체극의 내용은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효용속에 민족의 정서를 집체시킨 것으로 토속어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블랙코메디 공연

본교 연극영화과 제23회 3학년 심습공연인 「블랙코메디」가 4일부터 6일까지 연극영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피터세프 원작, 박영훈 연출로 공연되는 「블랙코메디」는 세태풍자와 함께 진정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사랑과... 공연

극단미애에서는 연극 「사랑과 함께 사랑하다」를 오는 23일까지 공간사랑에서 공연한다.

관객모독 공연

극단76극장의 관객모독이 공간사랑 정기공연에 마치고 무대를 실업극장으로 옮겨 30일까지 공연한다.

젊은 이웃」 집회

7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천여회 공연에 10만여명 관객을 얻은 76극장의 10년성공무대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동대광장

멋있는 동지 공연

극단 「형성」의 노래극 「멋있는 동지」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예술극장 한파당에서 공연된다.

이번연극은 여성노동자문화대동맹에 내보낸 작품은 새롭게 재구성한것이며 극단형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현장에서 작품들 만들어내는 극단으로 88년 노래극 「노동의 새벽」 「절대기를 벗고서」 등을 공연한바 있다.

집체극 공연

「집체극공연」이 총학생회 문화부·동아리연합회 문화부 주최로 7월 7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집체극의 내용은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효용속에 민족의 정서를 집체시킨 것으로 토속어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블랙코메디 공연

본교 연극영화과 제23회 3학년 심습공연인 「블랙코메디」가 4일부터 6일까지 연극영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피터세프 원작, 박영훈 연출로 공연되는 「블랙코메디」는 세태풍자와 함께 진정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사랑과... 공연

극단미애에서는 연극 「사랑과 함께 사랑하다」를 오는 23일까지 공간사랑에서 공연한다.

관객모독 공연

극단76극장의 관객모독이 공간사랑 정기공연에 마치고 무대를 실업극장으로 옮겨 30일까지 공연한다.

젊은 이웃」 집회

7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천여회 공연에 10만여명 관객을 얻은 76극장의 10년성공무대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동대광장

멋있는 동지 공연

극단 「형성」의 노래극 「멋있는 동지」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예술극장 한파당에서 공연된다.

이번연극은 여성노동자문화대동맹에 내보낸 작품은 새롭게 재구성한것이며 극단형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현장에서 작품들 만들어내는 극단으로 88년 노래극 「노동의 새벽」 「절대기를 벗고서」 등을 공연한바 있다.

집체극 공연

「집체극공연」이 총학생회 문화부·동아리연합회 문화부 주최로 7월 7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집체극의 내용은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효용속에 민족의 정서를 집체시킨 것으로 토속어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블랙코메디 공연

본교 연극영화과 제23회 3학년 심습공연인 「블랙코메디」가 4일부터 6일까지 연극영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피터세프 원작, 박영훈 연출로 공연되는 「블랙코메디」는 세태풍자와 함께 진정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사랑과... 공연

극단미애에서는 연극 「사랑과 함께 사랑하다」를 오는 23일까지 공간사랑에서 공연한다.

관객모독 공연

극단76극장의 관객모독이 공간사랑 정기공연에 마치고 무대를 실업극장으로 옮겨 30일까지 공연한다.

젊은 이웃」 집회

7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천여회 공연에 10만여명 관객을 얻은 76극장의 10년성공무대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재치기 공연

극단 사계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극 「재치기」를 섀터 파향새극장에서 공연한다.

재치기 공연

안동 제물포유류의 집단의 해학과 극도의 우수를 가미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인간과 각종부조리를 꼬집은 작품이다.

동대광장

멋있는 동지 공연

극단 「형성」의 노래극 「멋있는 동지」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예술극장 한파당에서 공연된다.

이번연극은 여성노동자문화대동맹에 내보낸 작품은 새롭게 재구성한것이며 극단형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현장에서 작품들 만들어내는 극단으로 88년 노래극 「노동의 새벽」 「절대기를 벗고서」 등을 공연한바 있다.

집체극 공연

「집체극공연」이 총학생회 문화부·동아리연합회 문화부 주최로 7월 7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학내외 각단체 강력대응기로

"6공법난" 규정... 당국음모 분쇄결의 학내비리 척결·민주적총장 추대촉구

李智冠총장, 黃眞經이사장들이 입시부정과 관련 지난31일 전격 구속됐다.

이와함께 邢盛柱 前교무처처장, 김종욱 학생부처장, 손재영 교무부처장, 이종욱 전자기계산소개 발부처장도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에 가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은교무부 특별감사관들이 실시하는 동안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태와 관련, 각단체성명

과 집회가 연이어지고 있다.

경주 비상 총회
경주캠퍼스비상학생총회가지난 2일 오후 3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 중정에서 열렸다.

이날 총학생회장 이종현(국문 4)은 "총무원장과 이사장과의 알력에 의해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자부처장 지 목적인 탄압의 가능성, 자기 총장을 노리는 세력의 음모일 가능성 등으로 생각

할수 있다"며 "이번 일을 중국총총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석림회서 성명
본교 석림회(회장=正心스님)를 비롯 불교계이단체로 구성된 「불교단합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연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림동회(회장=방지하스님), 통일불교운동연합회(공동의장=진관·명진스님), 서울지역 불교도 청년연합회(회장=배영진) 등이 포함된 「불교단합지지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를 괴도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도 도사리고 있는 현권력의 기만성과 정략적 불교단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교수님들이 앞장서야 할때입니다. 부정입학을 빌미로 학원탐입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 「교수회임시총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교수회의 공개대위참여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부탁했지만 교수회는 이를 무시하였다. 사진은 총회가 끝난 후 퇴장하는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공개대위참여를 호소하는 장면. <글·사진=지동철기자>

1천7백여명 부업활동

학생처 사무보조·거리질서 계도 등

학생처는 지난 1학기 동안의 「부업활동 현황」을 지난 20자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2천8백67명이 희망, 1천7백68명이 실천되었으며, 이중 남학생 1천2백18명, 여학생 5백5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내의 현황을 보면 각각 1백6명과 1천6백62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직과 거리질서계도 등에 많은 실적을 보였다.

동학인 결의대회

「민족통국 자긍심 부활을 위한 1만동학인 결의대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동대문구 각 자치단체들의 「법통과 공동대책위」 결성에 관한 결의가 모아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 4개 자치단체(직원노조, 대학원학생회, 조교협의회, 민주동맹회) 대표들이

민주동맹회 비총

민주동맹회(회장=신경림, 영문=주)는 「법통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1층 학생식당에서 가졌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민족통국 비상총회」에서 신경림회장은 「동맹의 모든 주체는 주인의식 발현을 통해 비리와 모순을 척결하고 민주통국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동맹회는 총장명서를 발표, 「우리는 오늘 총장과 이사장이 사외단체에 구속되는 너무도 엄청난 총액과 부끄러움, 분노를 함께 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주체는 총단, 재단, 교수, 학생들 어느 한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동국인이 라는 것을 각인하고 외부정권이나 분교당국의 개입은 단호히 반대하며, 동국인 모두는 대동단결의 기치아래 지혜와 용감한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공개토론회 개최

「민족통국 자긍심 부활을 위

교수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지난달 31일 李智冠총장이 「89학년도 신입생 부정입학건」으로 전격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총장의 지명으로 행정책임자가 된 金正根 교무처장을 만나보았다.

—본인이 총장권한내행

인사

교부에도 책임이 있다. 다만 본교는 최성양일 뿐이다.

—다가오는 총장선거와 중단문제, 그리고 공안정국이 이번 구속사태와 합수관계



金正根
총장지무권한내행

인사

로 지명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금: 학칙이나 학내 규정집 어디에도 공식적인 총장 대행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관례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뿐이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금: 이제까지의 대학역사에서 살펴보면 최태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대학정정이 결렬된 상태에서 부정입학은 언제든 나타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

계기로 할 것이라」로 시적이 양분되고 있는데...

—금: 학교당국은 조지수습을 위해 정부당국의 관계로와 법인, 종단 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지난간 과거는 과거라고 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총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은?

—금: 학교당국은 총장구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였으나 법의 관철에는 바르렀다.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금: 총장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판단에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동대책위와 연계할 생각은 없는지?

—금: 공동대책위는 대성각해 되어왔다. 지금이 초·실용을 중심으로서 각각각종의 의견을 모으고있다. 분명 문제의 해결주체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鄭恩錫기자>



이제는 교수님들이 앞장서야 할때입니다. 부정입학을 빌미로 학원탐입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 「교수회임시총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교수회의 공개대위참여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부탁했지만 교수회는 이를 무시하였다. 사진은 총회가 끝난 후 퇴장하는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공개대위참여를 호소하는 장면. <글·사진=지동철기자>

신상규명 요구

한편 「본교부 특별감사공개 및 부정입학 진상규명을 위

한 출정식」이 지난 31일 오후 2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열렸다.

총학기획부장 김봉준(아·경영 4)은 사회로 열린 이날 출정식은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 4)의 2학기 학자부 선포로 시작했다. 이어 사과대학총장 박영구(사학

4개 단대 학생회 출범

경주 민문연 공연 등 각종 행사

경주캠퍼스 4개 단대학생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제3대 인문대학학생회 출범식은 지난 5일 오후 2시 원효관 중정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신입학생회장이 김동철(영문 3)의 출

전일제 수업 반발

야간강좌 폐지 따른 대책 논의

전일제수업에 따른 야간강좌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민주적 처사였다」고 주장한후 「이후 최정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강의를 들어야하는 학생을 위한 야간강좌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간강좌 학생회장 이광호(회계 3)은 「영문과, 전산과, 산공과 등 3개과의 폐지에 대한 학교측의 태도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민주적 처사였다」고 주장한후 「이후 최정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강의를 들어야하는 학생을 위한 야간강좌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내 복지시설 이용안내

◇구내 은행 설치

가. 은행명: 조흥은행종로지점 동국대출장소

나. 위치: 본관외 학문단1층

다. 업무개시일: 9월20일(수)

라. 업무내용: 예금입·출금, 수표발행, 등록금수납, 여신업무대행

◇구내 생활법률상담소 설치

가. 설치장소: 후생복지과내(본관 4층)

나. 상담일시: 매월 둘째월요일 13:00~17:00 (1989년9월부터)

다. 상담방법: 상담희망자는 사전에 신청서 접수

라. 상담번호사: 김동경, 김익상, 김정용, 송진승, 정영덕

마. 상담대상자: 교직원(직계가족포함), 학생(대학원생 포함)

바. 상담내용: 생활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사. 상담비: 무료

아. 연락처: 구내전화 3556

◇여행사 지정

가. 지정여행사명: (주)아주관광 (현재 협정, 경영, 교육대학원 주거서비스)

나. 위치: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4층 (753-5051)

다. 업무개시일: 1989년9월1일

라. 업무대상: 교직원(직계가족 포함), 학생(대학원생 포함)

◇역경원 출간서적 할인

가. 할인율: 각권 30%

나. 연락처: 역경원(구내 3332)

다. 서적목록:

▲한글대장경 (각 권 8,000원, A 5판·洋裝·布클로스·케스·미색 製造) ... 中論, 法華經, 維摩經, 入楞伽經, 長阿含經, 金剛三昧經, 涅槃經①②, 佛本行集經①②, 華嚴經①②③, 佛阿含經①②③, 中阿含經①②③, 南門持頌①②③④⑤, 毘婆沙①②, 佛遺教①②③, 淨法藏集, 大般若經①②③④⑤⑥⑦⑧, 本生經①②③④⑤, 悲華經, 願樂集論, 真勸經, 撰集百緣經, 大樓炭經外.

▲불교성전 (각 5,000원)

▲佛敎辭典 (각 13,000원)

▲現代佛敎新書 全63卷 (각권 1,000원)

▲國寶經註解 (각 2,000원)

▲首楞嚴經註解 (각 5,000원)

▲清虛堂集 (각 6,000원)

▲地藏十輪經 (각 6,000원)

▲大乘菩薩戒思想 (각 5,000원)

▲戒律論 (각 5,000원)

▲新譯華嚴經 (각 6,000원)

▲시와 불교의 만남 1~5 (각권 3,000원)

총무처장

1989년9월 일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개국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대 참 방송인이여 역사를 반영하는자여! 해방 통일된 나라와함께, 민중과 함께 그대 참방송으로 영원하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 교수협의회 / 대학원학생회 / 조교협의회 / 총동창회 / 교직원노조 / 민주동맹회 / 동대신문사 / The Dongguk Post / 교지편집위원회 / 총대의원회 / 총여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DUBS 동우회

전국대학방송기자연합 / 경인지구대학방송연합

항일 무장투쟁 투지살린 '혁명하는 시대의 교과서'

집체극 「피바다」 공연에 앞서

I. 이 글을 쓰는 이유

극단적 분단상황에서 우리는 두개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민족을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다. 결코 틀림없는 우리! 그러나 미제국주의와 그하수정권에 의한 두개의 국가, 두개의 민족 착취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은 정치·경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더욱 심각하고 있다. 「민족」이라 했을 때 민족은 혈연·지연의 동질집단임과 동시에 정서·문화적인 동질성을 형성한다. 특히나 한사회의 문화·정서의 예술적 형상화하는 부분에서의 문화예술은 그 사회의 반영이다.

분단된 상황속에서 우리의 반쪽인 곳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알 수없는 우리들은 항상 그곳으로 향하는 '그림자'를 품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조건적 동경이나 상상적 회상이 아니라 완전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존심 회복을 위한 뼈아픈 몸부림인 것이다.

그것은 신속히 요청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최선의 요구이기도 하며 당연한 갈망이다.

II. 작품 「피바다」의 소개

북한에서 혁명하는 시대의 생활의 교과서로서, 불후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피바다」는 그들의 투쟁이론에 가장 충실하면서 바로 그 창작 배경이 되었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이 잘 관철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피바다」, 일제의 지배하 자행된 탄압과 수탈, 봉건지주들의 착취에 의해 우리 민족은 슬한 피를 흘렸다. 억압받던 우리 민족은 착취당할만큼 당한 우리 민족이 흘린 피는 한반도 강산을 온통 적색 피로 물들었다.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되는 1930년대 초반은 일제가 그들의 침략야욕을 한반도를 들뜨한 필발점으로 만주대륙까지 펼쳐나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통치로 인한 경제파탄에서 이제 군사방벽까지 파고들어가는 최대의 치욕스런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투쟁의 바다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민족해방투쟁의 전선에 떨쳐 일어섰던 것이다. 「피바다」는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북한주에 이주해간 조선노동자들이 일제의 야만적수탈과 거기에 기생하는 악덕지주와 폭압이라는 이중의사슬을 어떻게 깨뜨리나가야 하는 점을 주인공 원남이 일가의 고난에 찬 투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가혹한 수탈과 절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운명처럼 비극을 받아들이던 마을사람들이, 차차 자발발생적인 저항으로서는 일제의 파소적 억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마을사람들의 무계회적 투쟁에 대해 알 수없는 우리들은 항상 그곳으로 향하는 '그림자'를 품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조건적 동경이나 상상적 회상이 아니라 완전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존심 회복을 위한 뼈아픈 몸부림인 것이다.

이 소설의 줄기는 원남이 어머니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들이며 딸이며 손자를 찾아 머나먼 고향길에 나선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조직책임자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에 대해 새로이 눈을 뜨게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마을에 부녀회를 조직하는 물론, 좌구공작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 「호랑이굴」에 뛰어든다. 「영웅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소설은 결국 광범위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혁명군의 승리로 끝난다. 「피바다」는 「꽃파는 처녀」 「한 자위안인의 운명」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3대 고전」으로서 불후의 명작이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생활체험과 시련, 조직속에서 투쟁하는 투쟁가』로 되기까지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 발전과정을 진실되게 전형화

해야 할 사상성과 정형화라는 것은 인민대중이 건설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자기 모순속에서 허덕이는 나약한 인간됨보다는 거인하게 자기 삶을 이룩고 나가는 인간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간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립점을 형성하는 것은 부르주와 계급이며 「피바다」의 창작배경속에서는 일제와 거기에 발붙이는 지주계급인 것이다. 일관적 불은 계급적·사회적 신분은 그 사람의 정서 내지는 인간성까지도 지배한다. 그렇기에서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계급대립은 생활속에서는 성격대립, 인간성의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성과 부정

말투기



평이한 문장, 원만한 줄거리의 전개 담보한 창작자와 향유자의 동일성을 지향한 집체작으로 우리 문학의 미비점 극복

성인 측면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존중하는 '의견'이 있다. 인물의 도식화-음각화-양각화-이분화는 자칫 선악판단의 차이점으로 비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급적 대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현실화의 강조는 측면에서 이 두 면을 같이 균등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형상화의 전체라기보다는 대적적 선의 강화와 적대계급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선전선동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감정적 표현의 활용은 적절한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피바다」라는 작품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의 문예작품은 단순히 선전선동 문물이라고 매도하는 현정권의 상황속에서는 도저히 납득되기 힘들었던 점들도 있다. 그러나 참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바라본 「피바다」는 분명 뛰어난 작품이었다. 특히나 현실화라는 부분에서 획득하고 있는 리얼리티, 풍부한 순수우리의 구사, 폭넓게 인민대중에게 준 깊은 감동성과 작품속에서 보여준 혁명과정의 참다운 인간성의 정형화이다. 다른 면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순수우리의 사의사이다. ▲아름은 그결과 노영환(당시 MBC 사장) 具泰수(無任所長) 鄭文海(국회의원) 등 관리직이 파견되고 도종환이 장수(당시 MBC 사장)로 자칭 박정희의 국사선생이라는 노영환 장군이 낙산을 타고 내려오는 학원을 「하연」 「안되면 외」 하라」는 독재와 정권의 암투를 그려온다. ▲16년간의 문교부 특검감사가 끝나면 지난 31일, 검찰에 의한 총장과의 이사의 구속 사실은 전 중추인을 분노와 경악에 빠지게 했다. 『부정입학에 대한 일일대대』라는 '보통'이라는 검찰발표에 東興의 명예인사를 경질하는 한편 혁명을 잃은 권영림

말의 풍부한 사용과 문장 하나 하나가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쉽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물의 범람과 그 사상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언어속에서 과연 우리는 순수 우리 민족어 내음을 담보하는 문예작품에서의 완성이 방도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피바다」는 민족적 형식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문예작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학의 상용화라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문학이 수혜야할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창수 <문과대 국문과>

만화·컷 기사 모집

大學理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날카로운 붓으로 깨칠 만화·컷기사를 모집한다.

- ◇모집인원 : 〇명
- ◇응시자격 :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응시방법 : 본인이 직접 3편 이상 제출
- ◇접수기간 : 1989년 9월 19일

*각종본 本社 문화부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만화·컷기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東大新聞社

만화·컷 기사 모집

大學理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날카로운 붓으로 깨칠 만화·컷기사를 모집한다.

- ◇모집인원 : 〇명
- ◇응시자격 :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응시방법 : 본인이 직접 3편 이상 제출
- ◇접수기간 : 1989년 9월 19일

*각종본 本社 문화부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만화·컷기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東大新聞社

만화·컷 기사 모집

大學理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날카로운 붓으로 깨칠 만화·컷기사를 모집한다.

- ◇모집인원 : 〇명
- ◇응시자격 :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응시방법 : 본인이 직접 3편 이상 제출
- ◇접수기간 : 1989년 9월 19일

*각종본 本社 문화부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만화·컷기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東大新聞社

새로나온 책들

과학적 사회주의

노종기 옮김

최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해설과 과학적 사회주의의 함의는 학문적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소련방과아카데미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이책에는 사회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인류의 역사적 경험과 과학기술 혁명의 성과로서 최근 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일관된 관점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백투지 3천원>

정치경제학

박홍진 옮김

정치경제학에 대한 입문서로서 기초적인 내용이 편찬된 해설서로서 쓰여졌다. 일반적인 정치경제학 원본서들이 자본의 정치경제학만을 다룬 것에 비해 이 책은 자본의 정치경제학과 더불어 노동의 정치경제학, 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주제 및 관련법 등을 그리고 자본주의의 생성·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기초적도 알려준다. <백투지 4천 5백원>

탐위의 깃발(上)

유원현 옮김

1920~30년대 소련의 가장 대표적 인 교육자이며 문학가인 저자 마렌코프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필요로 하는 인간을 교육하는 방법론을 규명하고자 한 이 책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가 소설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집단의 지도자로서 집단의 명과 의무를 대변하고 집단의 앞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비추어줄 수 있게 한다. <함울림지 3천 5백원>

발해사

박시형 지음

이 책은 1979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원전 그대로 펴낸 것으로서 북한의 한국사 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해사를 고구려의 계승성의 차원에서 저술하고 있다. 현재 북한 역사학계의 원로인 저자는 발해국의 성립과 발전, 멸망의 원인과 과정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폭넓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하였고 발해에 관한 중국·한국·일본의 사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발해사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론과 실천지 5천 5백원>

한국사회변혁운동과노동

한국기독교선업개발원 역음

12·16대통령선거 이후의 한국사회. 변혁운동 속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서 70년대 이후 87년 하반기까지의 노동운동론에 대해 다룬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변혁운동논의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사회변혁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양대선거의 의미와 6공화국의 성격, 최근 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의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암문화사지 2천원>

현대 불교문화의 이해

유한근 지음

문학에서 제시된 삶의 제 문제를 명확히 하는 역할로서 종교교학을 이해한자가 문화작품의사상적 깊이와 소재 또는 제재의 확대에 불교가 큰 영향을 담당함을 역설하며 현대 불교문화 연구방법, 불교문화의 지평과 불교문화의 심제 및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불교의 이색성(離俗性)과 현실참여적 요소가 불교문화에 어떻게 수용되어 왔으며 불교문화가 나아가 길에 대한 검증이 곁들여 있다. <종로서적지 3천원>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역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 창달을 위해 소정학자와 실무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87년 결성된 「법과 사회」이론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토론을 모아 역은 부장기 강행 「법과 사회」에 「인민주의법 개」를 위한 공개토론」의 발표·토론내용과 한국 법학계의 보수적 속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를 싣고 있다. 또한 연구논문, 시평, 교육법정건의서등도 포함돼 있다. <창작과 비평지 4,000원>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민가협 역음

80년대의 커다란 조직사건들을 재조명 함으로써 이들 사건속에서 얻을 수 있는 반성과 교훈을 찾기위해 제작된 이책에는 민노련·민학련, 구미유학생지원단, 민정련 민주위, 서노련, 구학련, 반계동맹단, M 1당, 남노련, C A 그룹사건등이 10대 조직사건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활동과정들을 재평가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직접 집필 또는 증언을 통해 알 수 있게 한다. <아침지 3천 5백원>